북미지역에 소장된 내한 의료선교사 편지 기록의 현황과 디지털 인문학적 활용 가능성

Letters by Medical Missionaries to Korea: Exploring Digital Humanities Approaches

허 경 진 (Kyungjin Hur)*
한 미 경 (Mikyung Kim Han)**
이 혜 은 (Hye Eun Lee)***

초 록

1884년 한국에 온 최초의 의료선교사 Horace Allen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세운 뒤에 John Heron, Oliver Avison 등 외국인 의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차례로 입국하였다. 이들은 병원과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진료와 교육활동을 통하여 근대의학을 보급하고 발전시켰다. 또한 체류기간동안 파송기관과 교회에 공적 기록물을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동료, 후원자,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개인적인 기록물을 남겼다. 개화기 이후 내한선교사들의 기록, 즉 보고서, 기행문, 편지, 일기, 사진, 구술자료 등은 우리나라 근대사 연구에 필수적인 사료이다. 특히 일기나 기행문이 자세한 기록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과장되거나 불확실한 경우가 있는 것에 비해 편지는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의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가능하고 회고록처럼 후일의 상황변동에 따라 수정하거나 변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학술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내한 의료선교사들의 1차적인 기록인 편지를 보다 포괄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북미지역 29개 기관에 소장된 49개의 기록물 컬렉션을 조사하고 분석한 것이다. 또한 이들의 자료적 가치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인문학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근대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first Protestant medical missionary, Horace Allen, came to Korea in 1884 and built the first western-style hospital, Jaejungwon. John Heron, Oliver Avison and other foreign medical doctors soon followed. They established hospitals and medical schools, and, by treating patients and educating native doctors, they disseminated and developed modern medicine in Korea. At the same time, they wrote letters and reports to their sponsoring agencies, as well as family and friends, thereby leaving a vast body of literature that is scattered all over the world. Since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records left by foreign medical missionaries have been valuable resources for the study of Korean history. While all types of records, such as diaries, memoirs, reports and travel logs, are available, these tend to be exaggerated or unverifiable because they are unilateral records. In contrast, letters can be verified because they are bilateral records between the recipient and the sender, and cannot be modified or altered according to changes in circumstances. Despite the academic value of these materials, however, there have been insufficient efforts to discover or identify these primary data sources, or to systematically organize them for scholars. This paper identified 49 archival collections from 29 institutions in North America. After analyzing their academic value, the paper will explore digital humanities options in utilizing the letters for future scholarship.

키워드: 의료선교사, 편지, 아카이브, 컬렉션, 아카이브그리드, 디지털 인문학
medical missionary, letters, correspondence, Korea medical history, ArchiveGrid, archival collections, archives, digital Humanities

---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hur@yonsei.ac.kr) (제1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전공 박사과정(esthermhan@gmail.com) (공동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helee@sookmyung.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8년 2월 19일 논문심사일자 : 2018년 3월 16일 게재확정일자 : 2018년 3월 2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233-252, 2018.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8.29.1.233]

www.kci.go.kr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선교사는 1884년 한국에 온 미국인 Horace N. Allen이다.[1] 그는 입국한 지 몇 개월 후 일어난 갑신정변(甲申政變)으로 중상을 입은 민영익을 치료한 덕분에 정부의 넉넉한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세웠다. 그를 이어 John Heron, Oliver Avison 등 외국인 의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조선에 차례로 입국했다. 이후 이들은 병원과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진료와 교육 활동을 통하여 근대의학을 보급하고 발전시켰다(여인석 2007). 또한 이들은 체류기간 동안 선교사로의 책무로 파송 기관과 교회에 공적 기록물을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동료, 후원자,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개인적인 기록물을 남겼다.

개화기 이후 내한 선교사들의 기록, 즉 보고서, 기행문, 편지, 일기, 사진, 구술 자료 등은 우리나라 근대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사료이다(송현숙 외 2015; 장윤금 2013). 특히 이들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남긴 기록은 당시 다른 어떤 자료에도 나타나지 않은 귀중한 정보일 뿐 아니라 사회 각 계층의 삶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의 학술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내한 의료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다 포괄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Shuster는 연구자들이 기록관에 소장된 1차 자료들을 폭넓게 추적하는 일에 소홀함을 지적하면서, 연구자들이 소장 문서가 훌륭하게 정리되어 있고 친절한 직원들이 있는 몇몇 대표적인 기관에서만 자료를 찾으려는 편협성을 갖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Shuster 1985).

한편, 외국과의 문화교류를 연구할 때에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록은 일기, 편지, 보고서, 사진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 문화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나라는 청나라였기에, 조선 문인들은 연행(燕行)을 통하여 청나라 문물을 직접 보고 들었으며, 일기에 기록하였다. 귀국한 뒤에는 청나라에 다시 가볼 기회가 드물었으므로 편지로 문화정보를 교류하였다. 이 경우에 일기는 일방적(一方的) 기록(記錄)이다. 그리고 좀 더 잘 쓰기 위하여 계속 수정하다 보니 이본(異本)이 많아져 연구자료 선택에 혼선을 가져오게 된다. 실제로 박지원(朴趾源)이 기록한 『열하일기(熱河日記)』는 친필 이본만도 10여 종이 넘어, 손자 박규수도 "이것은 선왕고(先王考)의 수고(手稿)인데 지금 가지고 있던 본(本)과 조금 다르고 더욱 자세해서 어느 것이 원본인지 알 수가 없다"[2]라고 표지에 썼다. 연구자료로 가장 좋은 기록은 쌍방이

1) '의료선교사'의 개념은 한국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온 이후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의료와 전도가 꼭 동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의료행위 그 자체가 기독교 복음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갔다(여인석 2007). 초기 내한 의료선교사들 중에는 의료보다는 기독교 복음 전파가 더 우선이었던 의사들이 많았다. '전도 우선'이었던 Robert Hardie, Clement Owen, William Scranton 등은 의료사역을 중단하고 전도에만 전념하기도 하였다(이만열 2003). 그러나 1920년대 Florence Murray 같은 경우, 먼저 온 선배 의료선교사들이 발전하는 현대 서양 의학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낮은 의료 수준에 대해 개탄하는 편지를 보낼 정도로 의료의 전문성을 우선시하였다(Brouwer 1994).

2) 此是先王考手稿也, 与今本小異, 而加詳, 未知元本也.

www.kci.go.kr

주고받은 편지이다. 상대방이 서로 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에 수정하거나 바꾸어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허경진, 김영선 2014).

이 연구는 Allen이 조선에 도착한 1884년부터 일제가 서구 선교사들을 강제로 귀국시킨 1942년 사이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서 한국에서 활약하며 생산한 자료 중 북미 기록관에 소장된 기록물 컬렉션을 조사하고 이들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1884년 이후부터 1942년까지 한국과 만주 용정[3]에 파송되어 한국인을 대상으로 활동한 개신교 의료선교사들과 관련된 편지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들 자료들은 의료선교사들이 근무한 병원, 의료학교 등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회의록, 리포트 등의 기록이나 개인적으로 생산한 편지, 일기 등의 기록을 수집하여 보관하는 국내외 기록 기관의 영구 역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의료선교사 관련 기록 가운데 본 연구가 제외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단행본, 언론사나 기관을 통해 발행한 신문, 잡지 같은 정기간행물 등과 소책자 등 프린트 간행물은 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2) 선교사 후손 등 개인이 소유한 기록물은 다루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외 기관에 소장된 자료 중 기록물 수집과 보존의 기본원칙인 영구적 그리고 증거적 가치를 인정하여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는 편지로 한정하였다.

1.3 연구의 방법

미국에 소장된 내한 의료 선교사 자료는 아카이브 종합 목록 데이터베이스인 아카이브그리드(ArchiveGrid)[4]를 활용하여 검색을 진행하였다. 아카이브그리드는 현재 베타버전으로 서비스되고 있어 일반적인 도서관 온라인 목록에서 제공하는 상세 검색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불리언(boolean) 검색만 가능하다. 따라서 'Korea'와 'Mission' 두 단어가 모두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라는 조건을 설정하는 'Korea AND Mission'으로 불리언 검색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모두 860개의 서지 레코드가 검색되었고 검색된 레코드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범위인 1884년부터 1942년까지 내한하여 활동한 의료선교사들의 컬렉션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컬렉션을 선정하였다.[5] 그리고 선정된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기관들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각 기관의 검색도구(Finding Aids)를 조사하였다. 검색도구는 기록물에 대한 기술(記述)을 수록하고 있는 접근도구로서, 기록물의 목록은 물론 잘 구비된 검색도구의 경우

3) 중국 만주 지역으로 이주한 많은 한국인들의 계속적인 요청으로 의해 캐나다 장로회 해외 선교위원회는 1907년 만주 용정에 한국인들을 위한 병원, 교회, 학교를 설립했다(김승태 2011).

4) 세계 최대의 비영리 도서관 정보네트워크 기관인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의 ArchiveGrid (https://beta.worldcat.org/archivegrid/)는 2018년 현재 전 세계 천 개가 넘는 기관이 소장하는 보존 자료를 기술한 5백만 건의 서지정보를 웹상에 공개하는 방대한 규모의 목록이다.

5) 내한 의료선교사의 명단은 김승태, 박혜진. 1996.『내한선교사총람, 1884-1984』를 참고.

www.kci.go.kr

에는 기록물의 생산자에 관련된 포괄적 정보도 포함한다(한국기록학회 2008). 그러나 각 기관은 검색 도구를 갖추고 있지 않았거나 있어도 미흡한 수준이었고 잘 구비된 검색도구라도 온라인으로는 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각 기록관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자료를 조사하고 실물을 확인하였으며[6] 방문이 가능하지 못한 기록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아키비스트들과 이메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기록물의 성격을 확인하였다.[7] 아카이브그리드에 입력이 되어있지 않은 기록물이 있을 수 있고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 참여하지 않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 선교와 교회사 관련 단행본과 학술논문 등을 통한 문헌조사도 병행하였다.

2. 북미 소재 내한 의료선교사 편지의 소장 현황과 자료적 가치

조사 결과 북미 지역 29개 기관에 소장된 49개의 기록물 컬렉션을 확인하였고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북미 의료선교사 편지 현황

소장 기관	컬렉션명	편지 저자/활동지역 혹은 병원	시기	편지 수취인
Cornell University 코넬대	Womens' Medical Society of NY State Records	Hall, R./보구여관 Hall, S./해주구세	1911-	Women's Medical Society
Drexel College of Medicine 드렉셀의대	American Women's Hospital records	Hall, R./보구여관	1928-1950	E. Lovejoy
Emory University 에모리대	Sadie Maude Moore papers	Wilson/광주기독	1928	S. Moore
Fuller Seminary 풀러신학교	Papers of Wilbur Smith	Lawrence, E./세브란스, 동산	1923-1924	W. Smith
Harvard University 하버드대	William Rockhill papers	Allen/제중원	1891-1905	W. Rockhill
Haverford College 하버포드대	Hartshorne Family papers	Wells/제중원, 평양연합	1896	Hartshorne

6) 본 논문을 위해 직접 방문한 기록관은 다음과 같다.
Drexe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entucky Historical Society, New York Public Library, Nova Scotia Public Archives,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Rockefeller Archive Center, Rutgers University,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New York, United Church of Canada Archives, United Methodist Archives and History, University of Oregon, Yale University.
이 13개 기관 중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Rutgers University와 United Methodist Archives and History를 제외하고는 모두 방문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열람할 자료를 방문 전 미리 신청해야 했다. 방문 중 조사한 내용은 편지의 저자, 날짜, 숫자, 상태, 수취인, 내용 등이다. 방문했던 모든 기록관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했으나 개인 연구나 학교 수업 등을 위해서만 이미지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조사하였다.

7) 방문 조사를 하지 못한 기록관의 경우 아키비스트들에게 이메일을 하여 선교사 편지에 관한 정보, 즉 선교사의 이름, 날짜, 수취인, 분량 등을 얻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편지의 사본을 신청하여 조사하기도 하였다. 사본은 주로 pdf 파일로 받았는데 대부분 책정된 비용을 지불하였다.

www.kci.go.kr

소장 기관	컬렉션명	편지 저자/활동지역 혹은 병원	시기	편지 수취인
Indiana University 인디아나대	Willkie mss.	Hall, R./보구여관	1942	W. Willkie
Kentucky Historical Society 켄터키역사협회	Alexander Family papers	Alexander; Daniel;Drew/군산; Forsythe/목포; Nolan/군산; Owen/목포,광주; Timmons/전주	1902-1928	A.J.A. Alexander
Library of Congress 의회도서관	James H. Wilson papers	Allen/제중원	1900-1915	J. Wilson
	William Marshall papers	Allen/제중원	1904	W. Marshall
National Archives 국립문서기록관리청	US Diplomatic Records for Korea	Allen; Avison 등	1885-1897	Consul
New York Public Library 뉴욕공공도서관	Everett Frazar papers	Allen/제중원	1886-1892	E. Frazar
	Horace Allen papers	Allen/제중원	1883-1923	–
Nova Scotia Public Archive 노바스코샤 공공기록관	Helen Fraser MacRae Fonds	Armstrong, A. L./제창; Bournes/회령; Grierson/원산; MacMillian/제혜; Murray/ 제혜; Schofield/세브란스	1887-	Family etc.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장로교역사협회	PC in the USA. Board of Foreign Missions Correspondence & Reports	Allen/제중원; Heron/제중원 등	1884-1911	Board of Foreign Missions
	UPC in the USA COEMAR. Secretaries Files; Korea Mission	북장로교 선교사	1903-1931	–
	Owen Family papers	Owen/목포	1892-1921	–
	PC in the USA. Board of Forgn. Missions, Dept. of Personnel Records	북장로교 선교사	1832-1952	Board of Foreign Missions
	PC(USA) Worldwide Ministries Div. Stewardship and Communication Development Unit Records	남장로교 선교사	1919-2000	–
	Smith Family papers	Smith, R./동산	1911-1949	–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프린스턴신학교	Moffett Korea Collection	Bigger/평양; Heron/제중원; Fletcher/동산; Shields/세브란스 등	1870-1937	Family
Rockefeller Archive Center 록펠러 아카이브 센터	Davidson Fund records	Anderson, A./세브란스	1939	A. Packard
	Rockefeller Fndn. records, China Medical Board	Hall, R./기홀	1917	A. Flexner; W. Buttrick
	Rockefeller Fndn. records, International Health Board	Avison, O./세브란스	1925	F.F. Russell
Rutgers University 럿거스대	William Elliot Griffith Collection	Allen/제중원; Anderson, N./동대문부인, 평양기홀; Hall, R./기홀; Vinton/제중원	1888-	W. Griffis
Smithsonian Institution 스미스소니언	Charles L. Freer Papers	Allen/제중원	1907	C.L. Freer
Union Theological Seminary 유니언신학교	Henry Gerhard Appenzeller papers	McGill/상동; Allen/제중원; Scranton, W./정동병원	1883-1902	Henry Appenzeller
	Korea General paper	Boggs/전주예수; Prichard/광주; Levie/남장 -치과; Wison/광주	1904-	–
United Church of Canada Archives 캐나다연합교회 아카이브	Prebyterian Church in Canada Board of Foreign Missions fonds 1895-1925 [Records pertaining to the Korea Mission]	Avison; Boots/세브란스; Grierson/원산; Hardie/송도남성; Hopkirk & Hughes/세브란스; Kirk/함흥; Ludlow/세브란스; MacMillian/제혜; Mansfield/ 회령; Martin/제창; McKinnon /성진,원산; Murray/제혜; Schofield/세브란스; Sharrocks/ 미동; Whitelaw/세브란스	1895-1925	Board of Foreign Missions

www.kci.go.kr

소장 기관	컬렉션명	편지 저자/활동지역 혹은 병원	시기	편지 수취인
United Methodist Archives and History Center 연합감리교 아카이브 역사센터	Missionary Correspondence of the Board of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Anderson, A./세브란스; Busteed/상동; Follwell/기홀; Hall, W./평양; Hall, R./기홀; McGill/원산,평양; Miller/공주; Norton/해주; Scranton & Van Buskirk /세브란스	1891-1912	Board of Mission
	Missionary Files Series of the Board of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Anderson, E.; Boehning, H./송도 남성; Demaree; Hardie/제중원, 송도.; Norton/해주; Ross, J.	1907-	Board of Missions
	Missionary files series of the Board of Missions of the Methodist Church, 1912-1949	Anderson, A./세브란스; Anderson, N./동대문부인; Battles/세브란스; Boehning, H. & Boehning, G./송도남성; Bording/공주; Demaree/개성; Follwell/기홀; Found/세브란스; Hall, S./노튼; Hidy/해주; Kostrup/인천/; Lund/해주; McManis/원주; Miller/공주; Norton/해주; Payne/ 동대문 부인; Van Buskirk/세브란스	1912-	Board of Missions
	Mission Biographical Reference Files, United Methodist Church Archives	Cutler/평양; Hall, R./기홀; Hall, W./평양; Norton/해주; Scranton, Van Buskkirk & Shields/세브란스		–
	Mission Geographical Reference Files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Haiju Hospital	1930-1934	–
	Admin. Files Series of the Board of Missions, Methodist Church	Taylor, J. E. Rex; Avison, O./세브란스	1916-1946	–
UC Berkeley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Mary Downing Barnes papers	Hall, W./평양, 의료원	1894	Rosetta Hall
University of Guelph 겔프대	General files on Frank Schofield	Schofield/세브란스	1936	Mrs. Neat
University of Louisville 루이빌대	President's Office Records	Avison/세브란스	1937	Raymond Kent
University of Oregon 오리건대	Edna Lawrence Papers	Lawrence/세브란스,동산; Shields/세브란스	1905-1954	Family; E. Lawrence
	Roy & Lula Smith letters	Smith, R./동산	1914-1920	Family
	Vera F. Ingerson papers	Ingerson/미동	1922-	Family
University of the Pacific 퍼시픽대	Bolt Family papers	Mills/계례지; Ludlow/세브란스	1911-1915	R. Bolt
University of Toledo 톨레이도대	Gustavus Ohlinger papers	Allen/제중원	1914-1930	G.Ohlinger
Wisconsin Historical Society 위스콘신역사협회	Netti F. McCormick Correspondence	Underwood, Lilias H./제중원	1923	McCormick
Yale University 예일대 (Divinity School Library)	Arthur J. Brown papers	Allen/제중원	1901	A.J. Brown
	Franklin & Bertha Ohlinger papers	Vinton/제중원; McGill/원산,평양	1893	F. Ohlinger
	Misc. Personal papers	Found/세브란스	1929-	Family
Yale University 예일대 (Sterling Memorial Library)	Ellsworth Huntington papers	Van Buskirk/세브란스	1920's	Huntington
	School of Nursing	Rosenberger/동대문부인	1930	["Dean"]

www.kci.go.kr

대표적인 의료 선교사 자료를 한국에 가장 많이 의료선교사를 파송했던 북미의 5개 교단별로 그 특징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1 미국 북장로교회

미국 남북전쟁 기간인 1861년에 노예 문제로 분리된 북장로회와 남장로회 교단은 122년 후인 1983년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USA) 혹은 PC(USA)라는 이름으로 다시 합쳐졌다.[8] 1983년 통합 전 각각 많은 선교사들을 한국에 파송한 두 교단의 보존 기록물은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장로교역사기록보존소(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이후 PHS)에서 대부분 찾을 수 있다. PHS는 1852년에 설립되어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 기록관으로 PC(USA)의 공식 기록보존소(record depository)이기도 하다.[9] PHS에는 방대한 분량의 북장로회 해외선교부 자료들이 있으며, 그 중 한국 선교 연구에 관련된 주요 기록물 컬렉션은 다음 2개이다. 개인 문서 컬렉션으로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펫 한국 컬렉션(Moffett Korea Collection)이 있다.

2.1.1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Board of Foreign Missions Correspondence and Reports, 1833-1911: Korea (Chosen) 1884-1911. 16 reels (MF 10 F761a)

1833년부터 1911년까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중동 지역에 파송된 북장로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작성하여 뉴욕의 해외선교부(Board of Foreign Missions) 본부 앞으로 보낸 보고서와 편지와 해외선교부 총무가 선교사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원본은 폐기되고 마이크로필름(microfilm) 300릴(reels) 분량으로 1950년 후반에 만들어졌다. 300개의 필름 중 한국 의료선교와 관련된 부분은 16개의 필름 릴 분량으로, 알렌이 1884년 6월 9일 중국 상해에서 한국으로 선교지를 정식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편지에서부터 1911년도까지 17년 기간 동안 해외선교부 업무과정에서 생산한 편지와 보고서 등의 기록물들이다. Allen, Heron, Lilias Horton Underwood 등의 의사들이 해외선교부 총무였던 F.F. Ellinwood에게 보낸 초기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의 편지는 제중원을 중심으로 한 초기 의료 사역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과 더불어 그 당시의 조선의 사회적 상황을 담고 있다. 마이크로필름의 형태라 북미 주요 연구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내

8) 북장로회는 1958년부터 25년간 미국연합장로회(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이었다가 PC(USA)가 되었고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이다. 그 다음은 큰 장로교단은 1973년 남장로회를 탈퇴하여 설립된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이다. 미주리주에 있는 역사기록관(PCA Historical Center)에는 평북 선천 미동병원에서 20여년간 활동한 의사 William Chisholm의 개인 문서가 소장되어 있으나, 본 논문의 연구범위에 맞지 않아 포함시키지 않았다.

9) 2006년까지 필라델피아의 PHS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몬트리트(Montreat)에 있던 역사재단(Historical Foundation) 기록관을 함께 유지하였으나 재정적인 이유로 PC(USA)총회 연례회의 결정에 의해 2006년에 이 재단은 폐쇄되었다. 그곳 자료들은 PHS와 조지아주 컬럼비아신학대학(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도서관으로 나눠 옮겨졌다. 역사재단은 1927년부터 1983년 북장로회와 통합 전까지 남장로회의 공식 기록관이었다(Presbyterian Heritage Center 2008).

www.kci.go.kr

기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10] 색인도 포함되어 있다.

2.1.2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Commission on Ecumenical Mission and Relations. Secretaries Files: Korean Mission, 1903-1972 (Record Group 140)

북장로회 해외선교부의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1903년에서 1972년까지의 한국 선교관련 문서이다. 이 중 1903년부터 1957년 부분은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Korea Mission Records, 1903-1957"로 31개의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되어 여러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다.[11] 이 기록군(record group)은 해외선교부 총무에게 쓴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 편지와 보고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외에도 선교사 임명관련 서류, 선교 스테이션 리스트, 선교 연례 회의록, 집행위원회 회의록과 관련 편지, 선교 예산 및 재정적 문서, 각 선교 스테이션 분기별 편지, 선교사들이 개제한 기사, 일반 서신 등의 종류의 문서들이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박스 15에는 세브란스병원과 관련된 회의록, 편지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이 자료는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들이 105인 사건, 만세운동, 신사참배등 조선인들이 조국을 잃고 당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작성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1919년 9월 Avison이 해외선교부 총무 A. Brown에게 보낸 편지에는 태형 90대를 맞고 세브란스 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10명이었고 그 중 4명이 학생이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2]

2.1.3 Moffett Korea Collection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프린스턴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모펫 한국 컬렉션(Moffet Korea Collection)은 Samuel Hugh Moffett 교수 부부가 기증한 한국 선교에 관련된 광범위한 컬렉션이다. 하지만 많은 양의 자료들은 이미 다른 기록관에 보전된 것들의 복사본이다. Samuel H.의 아버지인 북장로회 선교사이며 평양신학교 교장이었던 Samuel Austin Moffett의 자료가 대부분이나 제중원에서 Allen과 같이 일한 의료선교사 Heron이 가족과 학생들에게 보낸 6통의 편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 컬렉션에는 Heron의 편지 외에도 의료 선교사의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Samuel H.는 선교사 자녀로서 평양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으며, 해방 후 자신도 안동과 서울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였다. 미국으로 돌아 온 후 어린 시절 평양외국인학교(Pyongyang Foreign School)를 같이 다닌 다른 선교사 자녀들에게 부모들의 자료 기증을 요청한 결과 방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북장로교회 소속 의료선교사들의 자료가 다른 교단보다 많은 것은 그들의 수와 활동량이 많았기 때문이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의사 중 가장 먼저 한국에 들어와 제중원을 설립한 Allen이

10) 마이크로필름은 연세대 학술정보원에 소장되어 있다.
11) 31개의 마이크로필름 목록의 번호는 MF POS 907, r. 1-31이다. 최근 Gale Cengage회사를 통해 마이크로필름이 디지털화되어 Archive Unbound를 통해 디지털 버전이 제공되고 있기도 하다.
12) Avison, O.R. to Brown, Arthur J. 9월 10일 1919년 (RG 140, Box 16, Folder 15: PHS, Philadelphia).

www.kci.go.kr

나 세브란스병원 원장인 Avison 등의 특별한 위치에서도 찾을 수 있다. 특히 Allen의 경우 북장로회 의료선교사로 내한하여 의사로서 활동을 했지만 1897년 미국 워싱턴 정부로부터 주한 미국 공사로 임명받아 외교관으로서도 활동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Allen이 생산하거나 관련된 자료는 의료선교사로서보다는 미국 공사로서의 자료가 많다. PHS의 문서를 제외하고 다른 Allen 관련 기록물은 거의 선교와는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Allen의 자료 소장처는 〈표 2〉와 같다.

2.2 남장로교회

남장로회 교단 총회는 다른 교단보다 늦은 1927년 텍사스의 Samnuel Tenney 목사가 개인적으로 소장해 온 교단 관련 서류를 기증한 것을 계기로 교단 공식 기록관을 노스캐롤라이나주 몬트리트(Montreat)에 세우기로 결정한다(Brackenridge 1992). 이후 몬트리트의 역사재단(Historical Foundation)은 2006년에 폐쇄되었고 그곳에 소장되어 있었던 남장로회 문서는 PHS로 옮겨졌다.

2.2.1 Presbyterian Church (U.S.A.) Worldwide Ministries Division. Stewardship and Communication Development Unit Records, 1919-2000. (RT 927 95I/95J)

이 컬렉션이 남장로교회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단체 저자(Corporate Author)가 남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in the U.S.)가 아닌 Presbyterian Church(U.S.A.)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카이브 목록규칙이 레코드 수집종료날짜를 기준으로 저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박스 번호 10(1926-1932)과 박스 번호 11(1933-1946)은 한국으로 파송된 남장로교단 출신 선교사들이 남장로회 해외선교부에 보낸 편지와 보고서 등이 포함된 자료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남장로교회가 1927년부터 교단 차원에서 교단 서류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1927년 이전 것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표 2〉 Allen이 생산한 기록이 소장되어 있는 기관과 컬렉션

기관	컬렉션명	시기
Harvard University	William Woodville Rockhill Papers	[1890]
Library of Congress	James Harrison Wilson Papers	1900-
Library of Congress	William Alexander Marshall Papers	1904
National Archives	U.S. Diplomatic Records for Korea	1897
New York Public Library	Everett Frazar Papers	1886
New York Public Library	Horace Allen Papers	1883-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BFM. Correspondence and Reports	1884-
Rutgers University	William Elliot Griffis Collection	1888-
Smithsonian Institution	Charles Lang Freer Papers	1907
Union Theo. Seminary	Henry Gerhard Appenzeller Papers	1891-
University of Toledo	Gustavus Ohlinger Papers	1914-
Yale University	Arthur Judson Brown Papers	1901

www.kci.go.kr

2.2.2 Alexander Family Papers: Alexander John Aitchison Alexander Series, 1897-1960 (MS 93, Series 4)

프랭크포트(Frankfort)에 위치한 켄터키역사학회(Kentucky Historical Society)에는 의료선교사의 편지가 다량 소장되어 있다. Alexander 가문의 문서는 1902년 군산에서 의료 선교를 했던 Alexander John Aitchison Alexander의 가문이 소장했던 컬렉션이다. Alexander 선교사의 증조부부터 시작하여 선교사의 아들까지 5대째 걸쳐 가족들이 남긴 방대한 양의 자료다. Alexander는 한국에서 활동했던 모든 선교사들 중 가장 부유한 배경 출신이라고 추측되는데, 그는 선교지로 정한 군산에 도착한지 2개월 만에 부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는 전방 선교사로서의 꿈을 이루지 못한 대신 후방에서 한국 선교를 도와, 그의 기부금으로 군산의 야소병원, 순천의 안락소병원 등의 건물이 신축되었다. 이 컬렉션에는 Alexander가 부유한 후방 지원자였기 때문에 당시 한국에서 선교하던 수많은 사람들과 편지 왕래를 하던 전모가 담겨 있다. 남장로회 소속 의료선교사인 Thomas Daniel, Damer Drew, Wylie Forsythe, Joseph Nolan, Clement Owen, Henry Timmons 등의 의사들이 상당량의 편지가 포함되어 있다.

2.3 북감리회

북감리회와 남감리회 교단은 1939년에 통합되었고 그 후 1968년에 연합감리회(United Methodist) 교단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북감리회와 남감리회의 공식 보존 자료들은 감리교단 공식 기록보존소인 연합감리교 아카이브(United Methodist Archives and History Center) 한 곳에 모두 보존되어 있다. 뉴저지주 드류(Drew)대학 캠퍼스에 위치한 이 감리교단 아카이브는 감리교 역사의 모든 사료들이 소장된 곳이다. 북감리회 내한 선교 연구에 관련된 다음 2개의 컬렉션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제공되고 있다.

2.3.1 Missionary Correspondence of the Missionary Correspondence of the Board of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846-1912 (RG 3749)

북감리회 해외선교부[13]가 1846년부터 1912년까지의 업무과정에서 수집한 해외선교 관련 편지 컬렉션이다. 28개의 마이크로필름으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중 3개의 마이크로필름(릴 15-17)이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편지와 해외선교부 총무의 답장으로 묶여져 있다. 북감리회 소속 의료선교사 Anderson, Busteed, Follwell, Hall, McGill, Miller, Norton, Scranton, Van Buskirk 등의 편지가 포함되어 있다.

2.3.2 Missionary files series of the Board of Missions of the Methodist Church, 1912-1949 (RG 3753)

1939년 남감리회와 통합되어 컬렉션 명칭이 "감리교회(Methodist Church)"로 변경되었지만 위 감리교 감독교회 선교부 편지(Missionary

13) 부서이름이 북감리회 "선교회(Missionary Society)"에서 1907년 이후부터 "해외선교부(Board of Foreign Missions)"로 변경되었다.

www.kci.go.kr

Correspondence of the Board of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에 연속되는 해외선교부 편지 컬렉션이다. 한국 선교 관련 부분은 마이크로필름 129에서 149까지 찾을 수 있다. Anderson, Battles, Bording, Lund, Payne 등의 간호사들의 편지도 소장되어 있다.

2.4 남감리회

2.4.1 Missionary Files Series of the Board of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897-1940 (RG 3752)

이 컬렉션은 1897년에서 1940년까지 남감리회 선교부(Board of Missions)가 현장 선교사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이다. 남감리회 선교부가 구축했던 기록의 조직 방식과 순서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되었는데, 선교사명을 알파벳으로 정리하기도 하고 지리적으로 정리하기도 하여 혼동을 주고 있다. 이 컬렉션은 마이크로필름 13개 릴의 분량으로 한국 부분만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 내용은 의료 선교사였던 Anderson, Boehning, Demaree, Hardie, Norton, Ross 등 남감리회 소속 의사들이 선교부 총무와 나누는 편지들이다.

2.4.2 Administrative Files Series of the Board of Missions of the Methodist Church (RG 4984)

인명 참고 파일(Biographical Reference Files)과 같이 연합감리회에서 옛 남감리회와 북감리회의 행정과 재정에 관련된 문서를 모아놓은 컬렉션이며, 마이크로필름으로 제공되고 있다. 의료선교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는 세브란스 연합 의과대학 폴더(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Folders) (call #392-394)이다. Avison 등의 편지 및 기록, 아버지 세브란스(Louis Severance)에 이어 계속 세브란스병원을 후원한 John Severance의 편지가 포함되어 있다.

2.5 캐나다 장로회와 캐나다 연합교회

캐나다 장로회는 1925년 캐나다 감리회 및 회중교회(Congregational Union)와 연합하여 캐나다 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anada)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1925년 이전 캐나다 장로회 소속 내한 의료선교사들의 관련 자료는 토론토에 있는 통합된 교단의 아카이브인 캐나다 연합교회 아카이브(United Church of Canada Archives)에서 찾을 수 있다. 이곳에는 캐나다 장로회 교단 해외선교부 총무와 캐나다 장로회 선교사들이 주고받은 편지가 포함된 컬렉션이 있다. 이러한 교단 자료 외에 개인 컬렉션으로 캐나다 북동부 핼리펙스(Halifax)시의 노바스코샤 공공기록관(Nova Scotia Public Archives)에 소장되어 있는 헬렌 프레이져 맥레 퐁(Helen Fraser MacRae fonds)을 확인할 수 있다.

2.5.1 Records pertaining to the Korea Mission, 1895-1925[14] (fonds 122, series 9)

캐나다 연합교회 아카이브에 소장된 내한 선교사 관련 컬렉션에는 당시 캐나다 장로회의 해외선교부 총무를 역임하였던 R.P. MacKay

14) 1895년 편지는 1장이고, 거의 모두 1908년부터 1925년 사이의 자료이다.

www.kci.go.kr

와 A.E. Armstrong이 한국으로 파송된 캐나다 선교사들과 주고 받은 편지들이 가장 많고, 그 외 세브란스의과대학과 관련된 조선기독교 교육협조위원회(Cooperating Board for Christian Education in Chosen)가 작성한 1915년에서 1925년까지의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 장로회는 1898년에 공식적으로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였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여러 명의 캐나다인 선교사들이 미국 교단 소속 혹은 독립적으로 한국에 왔다. 이들을 대표하는 의료선교사는 세브란스를 창설한 Avison과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조인 원산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Robert A. Hardie였다. 이 둘은 캐나다 장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지만, 그들의 출신 지역인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 편지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Grierson, Thomas Mansfield, Kate MacMillan, Florence Murray, Stanley Martin, Frank Schofield 등이 작성한 편지가 있다. 다른 교단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의료선교사들이 해외선교부 총무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병원 설립, 재정,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캐나다 선교사들은 특히 1919년 만세운동 당시 적극적으로 반일적 태도를 취하였는데(허윤정, 조영수 2015; 김승태 2011) 이 컬렉션의 편지 중에는 당시 조선의 상황을 본국의 해외 선교부에 알리는 내용들이 있어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2.5.2 Helen Fraser MacRae Fonds

선교사 개인 문서 컬렉션 중 내용물이 가장 다양하고 방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핼렌 맥레 퐁은 노바스코샤 공공기록관에 소장되어 있다. 미국 프린스턴에 있는 모펫 한국 컬렉션이 내한 선교사의 자녀가 부모 세대 선교사들의 자료를 수집한 것과 같이 Helen MacRae도 부모의 선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MacRae는 함흥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15] 대학진학을 위하여 캐나다로 돌아간 후 교사로 지내다 은퇴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컬렉션에는 Grierson이 1914년부터 은퇴 후까지 사용한 수첩, 함흥 제혜병원 의사 Kate MacMillan의 유서, 그와 관련된 재정적인 노트도 있다. 편지 컬렉션 중에는 Murray가 한국에 도착한 직후부터 가족들에게 쓰기 시작한 편지 수십 통이 있으며, MacRae의 부모가 Grierson, MacMillan 등의 의료선교사에게 받은 편지도 포함되어 있다.

조사 결과 내한 의료선교사 자료의 규모는 매우 다양하였다.[16] 예를 들면 하버포드(Haverford) 대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하트숀 가족문서(Hartshorne Family Papers)의 경우 James Wells가 1895년에 서울에서 쓴 것으로 콜레라 전염병과 치료 방법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분량은 편지 1통이다. 반면 켄터키 역사협회 아카이브에 소장된 알렉산더 가족문서에는 '한국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추앙되었던 의사 Wylie Forsythe가 쓴 편지가 60통 넘게 소장되어 있다. 이외에도 남장로회 소속 8명의 의료선교사들이 생산한 수백 개의 개별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지리적 관점으로 보면 자료 소장기관들은 미

15) 그의 아버지는 1898년에서 1937년까지 함흥에서 선교활동을 한 Duncan MacRae이다.
16) 모든 내한 선교사 편지가 포함된 컬렉션은 약 106개 정도로 파악되며 교단 컬렉션 규모가 커서 몇 통이 있는지는 추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www.kci.go.kr

국의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를 제외하면 모두 미국과 캐나다 동부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활동한 지역 분포와 자료의 소장 관계를 살펴보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단체는 미국과 캐나다의 5개 교단이었는데, 이들은 1892년부터 1901년까지 몇 차례의 협의 끝에 선교지역을 분할하는 협정을 맺는다(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89). 이는 선교에 참여하는 5개 교단이 각각 한국에서 담당하는 지역을 분할하여 그 지역만을 집중해서 선교하는 협정이다. 협정의 목적은 교단들 사이의 문제였던 선교지역의 중복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Underwood 1909). 초기 한국 선교에 참여한 5개의 교단과 관할 구역은 〈표 3〉과 〈표 4〉와 같다.[17]

초기 한국 선교에 적용되었던 지역 분할을 통하여 보면 당시 함흥이나 용정에서 활동했던 의료 선교사 자료의 캐나다 소장 경위와 미국 남장로회의 세력이 강했던 미국 남부 캔터키주에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한 의료 선교사의 기록물이 소장되어 있는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표 3〉 한국 파송 북미 교단

교단	영문	교단 기간	내한
미 북장로회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789-1958	1884
미 남장로회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1861-1983	1892
미 북감리회	Methodist Episcopal Church	1784-1939	1884
미 남감리회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833-1939	1895
캐나다 장로회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1875-1925	1898
	United Church of Canada	1925-	

(출처: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89)

〈표 4〉 선교회 지역 분할

교단	지역
공동지역	서울(북장로, 북감리, 남감리)
미 북장로회	경기 일부, 충북일부, 경북, 황해, 평남, 평북
미 남장로회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미 북감리회	경기 일부, 충북일부, 강원, 황해, 평남, 평북
미 남감리회	경기 일부(송도), 강원, 함남
캐나다 장로회	함남, 함북, 만주
호주 장로회	부산 및 경남

(출처: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89)

17) 호주 장로교회도 참여하였지만 비중도 적은데다 지역도 북미와 떨어져 있어서 별도로 소개한다.

www.kci.go.kr

3. 편지 기록의 디지털 인문학적 활용 방안

의료선교사들의 편지에는 개인적인 사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적인 내용도 담겨있다. 예를 들면 의료선교사들이 해외선교본부 총무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병원 설립, 재정, 운영 등의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의료선교사 편지를 아카이브로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한 인물의 전반적인 생애를 재구성하고 평가한 전기(傳記)나 평전(評傳) 경우에는 주관적인 평가나 과장, 심지어는 변개과정까지 개입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다. 대구 동산병원 간호사로 활동했던 Clara Hedberg Bruen이 남편 Henry Munro Bruen의 일기와 편지 등을 자료로 하여 남편의 40년 대구 생활을 한 권의 책으로 편집했는데, 이 책의 번역자는 「일러두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정도로 변개가 심했다(클라라 헤드버그 브루엔 2013).

> 그것은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해 씌여진 것이 아니라 브루엔의 두 번째 부인인 클라라 헤드버그가 남편의 유고를 정리하는 형식으로 여러 자료를 한데 모아서 묶은 것이다. 특히 편지글이 중심을 이루는데 … 여기까지는 자료의 수집이라는 차원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클라라는 자료의 수집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편집까지 손을 댔다. 그런데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자료적 가치마저 훼손을 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 책의 구성은 자료의 연대기적 배열을 염두에 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원칙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 상당 부분들이 앞뒤가 바뀌고 섞여있어서 독자들은 맥락을 놓치기 십상이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꼭지들이 아예 날짜 표시가 없거나 필자의 이름도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 더구나 클라라는 원문의 내용을 함부로 제거해 버린 경우가 적지 않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기 생각을 슬쩍 끼워 넣은 경우도 있다.

브루엔의 행적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기에는 적합한 책이지만, 4권이 되는 방대한 자료집임에도 불구하고 연대까지도 혼재되어 있으므로 사료로는 활용할 수가 없다.

둘째, 중요한 연구자료로 평가되는 보고서에는 표면적인 결과만 기록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나 이면의 갈등이 감춰져 있다. 제중원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며 알력을 빚었던 Allen과 Horace G. Underwood의 관계는 이들이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본부 총무 Frank F. Ellinwood에게 동시에 보낸 편지를 함께 비교해 보아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이들의 공과(功過)도 논할 수 있다.

셋째, 편지 한 장으로 어떤 사건을 연구할 수는 없다. 병원 설립이나 운영, 의과대학의 설립이나 교육, 연구를 예로 든다면 앞뒤의 편지도 함께 보고 상대방의 답신도 함께 검토해야 문맥을 파악할 수 있다. 의료선교사 한 명의 편지도 여러 아카이브에 나뉘어 소장된 경우가 많다. 현재 일부 의료선교사의 편지가 번역 출판되고 있지만, 역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자료를 어느 한 개인이 수집하여 검토하고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을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www.kci.go.kr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편지는 쌍방의 의사소통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낸 편지와 받은 편지를 함께 대조해서 읽어야만 문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편지를 데이터로 변환하고 시각화하는 프로젝트로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수행한 'Mapping the Republic of Letters'를 들 수 있다.[18] 이 프로젝트는 Locke, Rousseau, Diderot 등 계몽주의 시대 지식인들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Voltaire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약 18,000통의 편지를 썼는데 이를 통하여 당시 볼테르의 생각과 논증에 대한 것을 추적해 나가는 것으로 편지 내용의 일부를 디지털 지도로 구현하고 시각화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림 1〉은 매핑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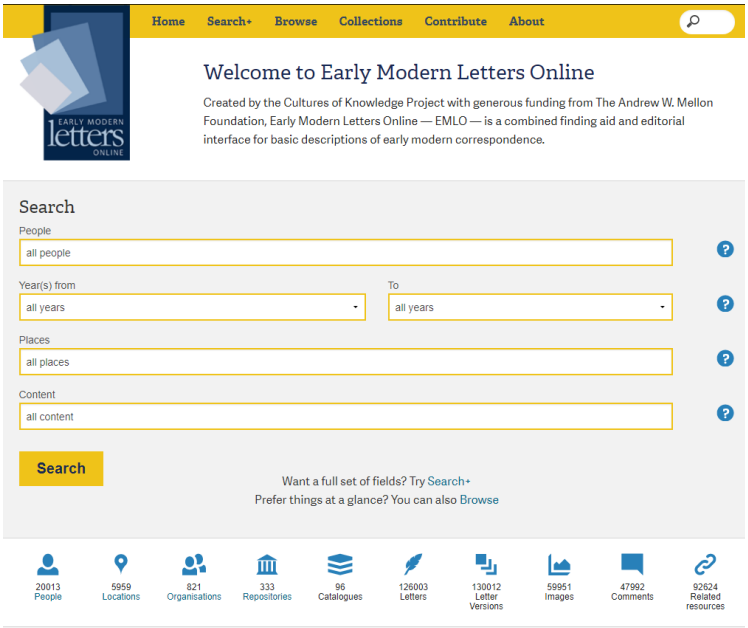
또 다른 사례로는 Early Modern Letters Online(EMLO)를 참고할 수 있다. EMLO는 앤드류 멜론 재단(Andrew W. Mellon Foundation)의 기금으로 옥스퍼드대학교 보들리언 도서관(Bodleian Library)과 인문학부(Humanities Division)의 협력 사업으로 개발된 것으로 16-18세기 학자들의 편지를 한 공간에 모아 접근과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도된 것이다(〈그림 2〉 참조).[20]

이러한 사례를 참고로 하여 의료선교사 아카이브를 구축하면 편지 한 통을 연구할 때에도 편지자료(편지 원문, 번역문, 해제, 사진), 인물정보(발신자와 수신자의 이름, 생몰년, 직명, 역할, 거주지), 공간자료(발신자와 수신자가 활동하던 장소, 만난 장소, GIS정보), 시간정보

〈그림 1〉 Mapping the Republic of Letters

18) http://republicofletters.stanford.edu/ [cited 2018.2.10].
19) https://artsbeat.blogs.nytimes.com/2010/11/16/digitally-mapping-the-republic-of-letters/ [cited 2018.2.10].
20) http://emlo-portal.bodleian.ox.ac.uk/ [cited 2018.2.10].

www.kci.go.kr



〈그림 2〉 EMLO 검색화면

(발신시기, 수신시기, 관련인물이나 배경사건과 관련된 시간정보), 용어사전 등을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다른 발신자, 수신자들의 편지까지 관련지어 검색할 수 있다(허경진, 김영선 2014). 조사된 의료선교사 편지들을 기초로 하여 편지공화국 지도나 EMLO의 방식으로 구현하면 '세브란스병원 편지지도'와 같이 특정 기관이나 인물을 구체화할 수 있고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한국의 지식인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다양한 항목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어 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편지의 메타데이터, 이미지, 번역문을 제공하는 아카이브를 넘어 자료를 보다 입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디지털 인문학적 방법론의 적용이라 할 수 있다.

4. 결 론

국제교류를 연구하려면 일기, 자서전, 전기, 보고서, 편지 등의 다양한 기록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활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일방적인 기록이어서 쌍방적인 소통의 기록인 편지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쌍방에서 주고받는 편지의 성격상, 한두 편의 편지만 가지고 연구하면 앞뒤의 문맥을 이해할 수 없다. 여러 나라의 아카이브에 흩어져 소장된 방대한 분량의 편지를 연구자 개인이 방문하여 사진으로 찍고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도 역시 한계가 있다. 최근에 의료선교사의 편지가 일부 번역되었지만 사진 원본까지 제공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www.kci.go.kr

한국에서 근대 의학이 정착하여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선교사들이 국내외 인물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다. 이 연구는 가장 많은 의료선교사 편지가 소장되어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29개 기관, 49개의 컬렉션을 조사하고 각 교단별로 그 자료적 특성을 파악하고 가치를 평가하였다. 이 이외에도 호주의 Uniting Church, Synod of Victoria, Melbourne에는 C. I. McLaren, F. J. L. Maclae, APM 선교사 등의 편지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The Letters Of Dr. C. I. McLaren'은 배돈기념병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등에서 32년간 활동한 의료선교사 C. I. McLaren의 편지들이다. 국내에도 양화진문화원에 한국 최초의 여성 전용병원인 보구여관(保救女館)에서 1890년부터 사역한 의료선교사 Rosetta S. Hall이 미국의 가족과 한국의 제자, 친지들에게 보낸 영어편지와 한국의 제자들이 Rosetta Hall에게 보낸 영어편지, 한국인 유지나 학부형들이 Rosetta Hall에게 보낸 한글편지 등 39통이 소장되어 있다. 일부는 Rosetta의 남편인 William James Hall이 보낸 편지도 있다. 이것은 Hall 부부의 후손들을 초청한 것을 계기로 2014년에 Rosetta Hall과 Sherwood Marian 부부에 이르는 2대의 선교사 유품 전부를 양화진기록관에 기증하였다(로제타 홀 2015). 대구근대역사관에는 Henry Munro Bruen 선교사 부부의 편지 21통이 우편 소인이 찍힌 봉투와 함께 소장되어 있다. 주로 1930년대에 주고받은 편지인데, Bruen이 보낸 편지도 있고, 받은 편지도 있다. 아내 Clara Bruen은 대구 동산병원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 Bruen의 일기, 편지 등을 수집하여 남편의 전기를 출판하였다. 또한 독립기념관에는 1916년부터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 강의했던 Frank W. Schofield의 편지, 노트, 수첩, 엽서와 편지, 유언장 등이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스코필드 관련 편지는 121통, 엽서와 그림엽서, 전보가 56통이 있다.

연구의 결과 이들 자료는 개별적인 편지 자체로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자료들을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통하여 새롭게 활용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료선교사 편지의 목록뿐만 아니라 기여자에 대한 정보(Contributors), 내용과 주제(Themes), 지리적 정보(Geography), 연대순 정보(Chronology), 소장처 정보(Repositories)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시각화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중국 용정은 캐나다장로회의 선교구역이었으며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들은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 따라서 현재까지 조사된 아카이브에 소장된 편지들만을 대상으로 디지털 인문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구현하여도 최소한 6개국에 관련된 편지 지도가 작성되고 관계망을 통하여 이들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시도는 근대 의학 정착에 관한 다양한 항목들의 검색을 가능하게 하며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www.kci.go.kr

참 고 문 헌

김승태. 2011. 캐나다 장로회의 의료선교.『연세의사학』, 14(2): 7-36.

김승태, 박혜진. 1996.『내한 선교사 총람: 1884-1984』.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김현. 2013. 디지털 인문학.『인문콘텐츠』, 29: 9-26.

로제타 홀 저, 김현수, 강현희 옮김. 2015.『로제타 홀 일기 1』. 서울: 홍성사.

송현숙, 이명희, 정희선, 김희순. 2015. 호남지방 종교지리 연구동향과 과제: 미 남장로회 선교기록물을 중심으로.『남도문화연구』, 30: 359-395.

여인석. 2007. 한국근대 선교의료기관의 형성과 성격.『동방학지』, 139: 105-136.

이만열. 2003.『한국기독교의료사』. 서울: 아카넷.

장윤금. 2013. 우리나라 초기 외국인 선교사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필요성 연구(1800-1910).『정보관리학회지』, 30(4): 265-281.

클라라 헤드버그 브루엔 자료수집과 정리, 김중순 편역주. 2013.『아, 대구! 브루엔선교사의 한국생활 40년』. 대구: 평화당출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89.『한국기독교의 역사』. 서울: 기독교문사.

한국기록학회. 2008.『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허경진. 2014.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다양한 층위(層位)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한민족어문학』, 66: 323-350.

허경진, 김영선. 2014. 18-19세기 한중 교류척독집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인문사회과학연구』, 15(1): 169-200.

허윤정, 조영수. 2015. 일제하 캐나다 장로회의 선교의료와 조선인 의사.『의사학』, 24(3): 621-657.

Brackenridge, R. D. 1992. "The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One Hundred Forty Years." *American Presbyterian History*, 70(1): 3-9.

Brouwer, R. C. 1994. "Home Lessons, Foreign Test: The Background and First Missionary Term of Florence Murray, Maritime Doctor in Korea." *Journal of the Canadian Historical Association*, 6: 103-128.

Presbyterian Heritage Center. Historical Foundation (1926-2006) [online]. [cited 2018.1.25]. 〈http://www.phcmontreat.org/montreathistory-historicalfoundation.htm〉.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History of the Church [online]. [cited 2018.1.30]. 〈http://www.history.pcusa.org/history-online/presbyterian-history/history-church〉.

Shuster, R. 1985. "Documentary Sources in the United States for Foreign Missions Research."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9(1): 19-29.

www.kci.go.kr

Underwood, H. G. 1909. “Division of the Field.” *The Korea Mission Field*, 5(11): 211-21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ruen, Clara Hedberg, translated by Kim, Chung-sun. 2013. *A, Daegu! Puruen Songyosa ui 40 years in Korea*. Daegu: Pyonghwadang Chulpansa.

Chang, Yunkeum. 2013. “The Needs of Digital Archive Development for the Records of Early Foreign Missionaries in Korea (1800-191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4): 265-281.

Hall, Rosetta, translated by Hyon-su Kim, Hyon-hui Kang. 2015. *Diary of Rosetta S. Hall*. Seoul: Hongsongsa.

Heo, Yun-Jung and Young-Soo Cho. 2015. “Missionary Medicine of Canadian Presbytery and Korean Doctors under Japanese Occupation - focusing Sung-jin and Ham-heung.”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24(3): 621-657.

Hur, Kyoung-jin. 2014. “The Various Shapes of East Asian Cultural Interaction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Databas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66: 323-350.

Hur, Kyoung-jin and Young-seen Kim. 2014. “Measures for Collection of Letters with Chinese Intellectuals of Qing Dynasty in 18 to 19 Century and for Its Database Establishment.”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5(1): 169-200.

Institute of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1989. *A History of Korean Church*. Seoul: Kidok Kyomunsa.

Kim, Hyon. 2013. “Digital Humanities: Cooperative Scheme between Humanities and Cultural Contents.” *Humanities Contents*, 29: 9-26.

Kim, Seung-Tae. 2011. “Canadian Presbyterian Mission to Korea and It’s Medical Works at Yongjeong in Manchuria.” *Yonsei Journal of Medical History*, 14(2): 7-36.

Kim, Seung-Tae and Hyejin Pak. 1996. *A Directory of Protestant Missionaries to Korea, 1884-1984*. Seoul: Institute for the Study of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Korean Society of Archives Studies. 2008. *Directory of Records and Archival Terminology*. Seoul: Yoksa Pipyongsa.

Song, Hyun-Sook, Myeong-Hee Lee, Hee-sun Chung, and Hee-soon Kim. 2015. “A Review on Research Trends and Applications in Geography of Religions.” *Journal of Namdo Area Studies*, 30: 359-395.

www.kci.go.kr

Yeo, In-sok. 2007. “The Formation of Medical Missionary Institutes in Korea and Their Characterisitcs.”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139: 105-136.

Yi, Man-Yol. 2003. *A history of Christian medical work in Korea*. Seoul: Acanet.

www.kci.go.kr